

# 현대중국어 ‘来着’ 相적 특징 중한 대조 분석

한 경 숙  
(단국대학교)

## 1. 머리말

본고는 현대중국어 조사 ‘来着’의 통사구조와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통사구조를 대조 분석하여 두 언어에서 나타내는 의미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를 통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설명적 타당성으로 이끌어 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런 대조 분석의 결과를 중국어 교육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언어는 두뇌세계를 구현해내는 도구이다. 이 두뇌세계는 현실세계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두뇌세계이든 현실세계이든 그 내용의 핵심은 시간과 공간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어우러진 시공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세계의 ‘世’, 즉 시간은 술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계의 ‘界’, 즉 공간은 주어 및 목적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1)</sup> 그렇다면 본고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시간적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来着’는 문장에서 술어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시간이 언어구조로 형식화 될 때는 다시 시제, 상, 양상으로 표현이 된다.

---

\* 논문을 심사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포함합니다.  
1)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3, 2013, p. 495.

본고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来着’는 비록 ‘了’, ‘着’, ‘过’의 상황과 달리 상의 개념인지 아닌지 아직도 논쟁이 매우 뜨겁지만, 근현대중국어의 여러 문헌에서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사로 사용되고 있기에 이것이 중국어의 시제, 상, 양상과 어떤 관계가 있고, 한국어와는 어떤 대응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그 의미와 관련 통사구조를 통하여 면밀히 분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의 결과가 중국어 교수법 연구에 반영되면 보다 좋은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来着’ 선행연구

‘来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来着’가 시제, 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来着’를 어떤 품사로 귀속시켜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학자들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어떤 학자들은 ‘来着’가 ‘시제’나 ‘상’과 관계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王力(1943/1984), 吕叔湘(1982), 龔千炎(1995), 张斌(2002)등이 있다.

둘째, 宋玉柱(1981), 张谊生(2000), 齐沪扬(2002)등은 ‘来着’의 상과의 관계 유무 즉 ‘来着’가 ‘了’, ‘着’, ‘过’ 등과 같은 기능을 하는 동태조사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동태조사 외의 여러 가지 조사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중 宋玉柱(1981), 张谊生(2000) 등은 ‘来着’를 ‘来着<sub>1</sub>’와 ‘来着<sub>2</sub>’로 나누어 전자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조사’이고 후자는 ‘어기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朱德熙(1982)과 熊仲儒(2003)은 ‘来着’를 단순한 ‘어기조사’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 호선희(2012)는 ‘来着’의 여러 문법적 기능에 대해 고찰하였고, 이은주(2004)는 ‘来着’의 시간 의미에 대해 각각 고찰하였다.

본고는 ‘来着’가 상적 특징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행연구를 기초로 현대중국어 ‘来着’의 의미소와 관련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본고의 논지를 전

개해볼 것이다. 중국북경대학교 CCL말뭉치 속의 예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본고가 현대중국어 ‘来着’ 예문 375개를 추출하여 정량 분석한 결과 이 중 365개(97.3%)가 문장의 끝에 위치해 있었고, 9개(2.7%)만이 문장 속에 위치해 있었다. 문장 속에 위치하는 상황은 그 뒤에 어기조사 ‘啊’, ‘呢’, ‘咧’가 출현하는 상황과 문장 중에서 ‘是 + O<sub>1</sub> + 来着 + 是 + O<sub>2</sub>’과 같은 선택구조 복문을 구성하고 있는 ‘来着’가 되겠다. 본고는 ‘来着’와 더불어 그 앞에 출현하는 동사와 함께 고찰하여 ‘来着’가 상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어기조사인지 중한 대조 분석을 통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 Ⅲ. ‘来着’ 관련 구조 및 의미소 대조 분석

#### 1. ‘来着’ 관련 통사구조와 의미소

통사구조와 의미 전달에 관해 장호득(2013:500)<sup>2)</sup>은 말은 현실세계, 경험세계, 객관세계가 ‘头脑世界’를 ‘말소리’라는 수단으로 송수신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말소리’는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뇌로 받아들이면서 시공세계

2) “말은 현실세계, 경험세계, 객관세계가 ‘头脑世界’를 ‘말소리’라는 수단으로 송수신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뇌세계란 구체적으로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두뇌에서 재구성한 ‘时空世界’를 말한다. 世界, 时空, 宇宙라는 낱말은 모두 时间和空间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卅는 ‘十’이 세 개 결합하여 된 글자로 ‘三十’의 뜻이며 이것은 30년을 한 세대로 한다는 시간 개념을 나타낸다. 畝는 ‘田’을 의미로 삼고 ‘介’를 소리로 삼아 형성된 글자로 ‘밭의 경계를 나타내는 공간적 개념’을 뜻한다. 또 시공의 ‘时’와 우주의 ‘宙’는 시간 개념을, 시공의 ‘空’과 우주의 ‘宇’는 공간 개념을 나타낸다. 이런 정보세계를 핵심 언어구조로 형식화하면 ‘공간[주어] + 시간[술어] + 공간[목적어]’로 구조화 할 수 있다. 여기에 부차적인 역할체를 보태면 공간 개념을 보완해주는 관형어[定语]와 시간 개념을 보완해주는 부사어[状语]와 보어[补语]가 있다. 현대중국어 구조에서 공간 개념을 보완해주는 역할체는 주어와 목적어 앞에 위치하며, 시간 개념을 보완해주는 역할체 가운데 부사어는 앞에서, 보어는 뒤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3, 2013, p. 500.

를 재구성한다고 하였다. 즉 두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정보세계를 핵심 언어구조로 형식화하여 중국어의 ‘주술목(공간[주어] + 시간[술어] + 공간[목적어])’ 구조로 구조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도 이런 관점에 동감이다.

본고는 통사구조와 의미 전달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중국어 ‘来着’와 관련하여 ‘V<sup>3</sup> + 来着’; ‘V + O + 来着’; ‘V+(O) + 来着, + Sen<sup>4</sup>’; ‘V + 来着 + Par<sup>5</sup>’ 등 네 가지 통사구조로 나누고, Chomsky(1981)의 지배-결속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그리고 장벽이론(Barriers)<sup>6</sup>에 근거하여 이들 통사구조의 수형도를 그려볼 것이며 또한 수형도에 대한 분석과 각 문장 동사의 상 자질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来着’의 상적 특징에 대해 중한대조 분석 하겠다.

현대중국어의 상 표지로 쓰이는 조사 ‘了’, ‘着’, ‘过’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고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주장하고 있고 아직 완전히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이 상 표지(动态助词)로 쓰이고 있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来着’도 국내의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학자들마다 ‘来着’의 품사가 무엇인지, 상, 시제 등 표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고 아직 완전히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시제와 상에 대한 문법범주 설정에 대한 논의가 시제 범주와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제 상의 하위체계를 갖는 시제-상 체계를 세우거나 하여 정설화가 된 이론의 바탕이 마련되고 있지 않기에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범주 설정에 관한 불일치는 범주가 갖는 기능보다는 형태들이 갖는 의미의 규명에만 몰두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일단 상 범주를 먼저 설정하고 이런

3) ‘V’는 술어 동사를 나타낸다.

4) ‘Sen’는 ‘Sentence’의 약자로 앞 문장에 이은 다른 또 하나의 문장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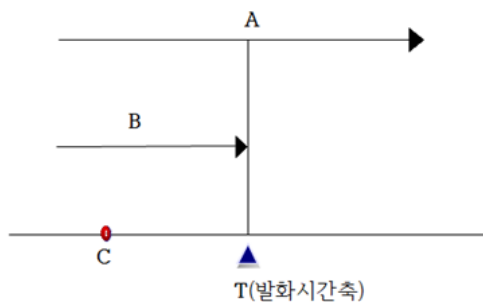
5) ‘V + 来着 + Par’ 중 ‘Par’는 ‘Particle word’의 약자로 중국어 ‘助词’를 일컫는 것이다.

6) Chomsky(1986)의 Barrier에 나타난 이론으로 ‘장벽이론’으로 불리는데 ‘지배결속이론’의 변화 발전된 이론이다. 이 장벽이론은 ‘X’-통사론’을 비어휘적 범주까지 확대하였으며 ‘X’-통사론’에 맞는 새로운 장벽개념을 도입하고 이 장벽개념을 통해서 지배개념과 하위인접조건을 통합하고 있다.

범주에 해당하는 조사 ‘來着’의 용법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시제와 상은 모두 시간과 관계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은 공간적인 개념이다. 동사들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 혹은 상태변화는 시간적으로 그 시작과 끝이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시제를 나타내며, 공간적으로 동작이나 상태 혹은 상태변화의 목적에 대한 완료냐 미완료냐 즉 동작 진행의 장면이 분해되고 있는지에 따라 상을 나타낸다. 시간적인 완료가 반드시 공간적인 완료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시제가 시간선 상의 외적 구성 즉 시간의 위치(時點)를 나타내고 있다면 상은 내적 구성 즉 동사의 동작이 어떻게 펼쳐지는가(時段)를 보여주는 것이다.

장호득(2000)은 이런 상을 ‘시간의 공간화’라고 주장하는데 본고도 그의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제의 기준 시점 설정도 명확해야 할 것이다. 다음 그림 (1)을 보겠다.



그림(1) 상과 시제

발화시간축 상의 과거시제와 완료상 그리고 미완료상을 그림(1)로 나타낼 수 있다. ‘C’는 현재시점인 발화시간축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으므로 과거시제이고 ‘B’는 사건시가 현재시점인 발화시간축까지 이어져 그 간격이 없기에 완료상이며 ‘A’는 발화시간축을 기준으로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에 미완료상이다. 본고는 Bernard Comrie(1976)의 분류를 참조하여 상을 크게 ‘完了相’과 ‘未完了相’<sup>7)</sup>으로 나누겠다. ‘완료상’은 또한 그 하위범주로 ‘과

7) 중국어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 표지인 ‘了’를 학자들은 세부적으로 ‘완료’, ‘완성’, ‘실현’ 등으로 보고 있다. ‘완료’로 보는 학자는 呂叔湘(1982) 등이 있고,

거진행상(Past Conduct Aspect)', '과거지속상(Past continuous Aspect)'<sup>8)</sup> 그리고 '과거경험상(Past experience Aspect)'과 '成事相(Past continuous Aspect)'<sup>9)</sup>을 설정하겠다. 동사의 상 자질로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등을 설정하고 이 상적 특성에 따라 동사를 고찰하겠다. 이런 분석과 더불어 Chomsky(1981)의 지배-결속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그리고 장벽이론(Barriers)에 근거한 '來着' 관련 구조 수형도 분석과 함께 '來着'의 상적 특징을 고찰해 나갈 것이다.

'來着'를 고찰함에 있어서 '來着'가 조사 '了', '着', '过'와 같은 상적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만약 있다면 어떤 상적 특징이 있고 조사 '了', '着', '过'와 어떤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고찰하면서 동시에 '來着'가 시제, 양상과 관계가 있는지도 분석할 것이며 '來着'가 한국어의 어떤 상적 특징, 시제, 양상등과 대응되는 지도 고찰해 볼 것이다.

'완성'으로 보는 학자는 刘月华(1983) 등이 있고, 그 외에 '완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완료'의 의미로 쓰인 완성이 아니라 '시간의 공간화'로 설명하여 '실현'과 비슷한 견해를 주장한 장호득(2000) 등이 있다. Bernard Comrie(1976)도 상을 '완료상'과 '비완료상'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어의 상을 크게 '완료상'과 '비완료상' 두 가지로 나누고, '완료상'을 다시 세부적으로 그 하위범주로 '과거진행상(Past Conduct Aspect)', '과거지속상(Past continuous Aspect)' 그리고 '과거경험상(Past experience Aspect)'과 '成事相(Past continuous Aspect)'으로 나누어 보려고 한다. 이중 '成事相(Past continuous Aspect)'은 장호득(2013:499)의 논문을 참고한 것이다.

- 8) 본고의 중국북경대학교 CCL말뭉치에 출현한 '來着'에 대한 고찰에 의하면, '來着'구는 총체적으로는 과거에 이미 완료된 일을 묘사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과거진행', '현재 이미 완성된 동작' 그리고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지속'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에 '來着'구 중의 동사는 모두 지속성을 갖고 있는 '지속동사'다. 즉 '비지속동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완료상의 하위범주로 동작이 과거 어떤 시점에서부터 다른 한 시점까지의 진행을 '과거진행(Past Conduct Aspect)'으로 과거에 어떤 동작이 한 동안(혹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과거지속(Past continuous Aspect)', '과거경험상(Past experience Aspect)'으로 설정하겠다.
- 9) "필자는 『논어』의 이 문장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것을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성사시킴'이라는 개념에 대입시켜 '일을 성시킨 후에도 다른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로 '成事相'을 설정하였다.",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3, 2013, p.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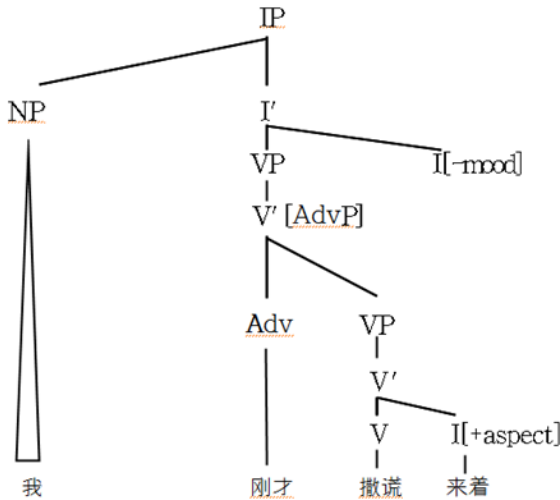
## 2. ‘V + 来着’ 구조 중의 ‘来着’

아래의 예문<sup>10)</sup>을 보겠다.

(1) 我刚才撒谎来着。(난 방금 거짓말을 했다.) / (1a) 我刚才撒谎了。

‘撒谎[+동태성, +완결성, -순간성]’은 이합동사로 뒤에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고 있다. (1)에서 술어 ‘撒谎’ 앞의 부사어 ‘刚才’와 ‘来着’를 빼보면 문장이 평서문 “我撒谎(나는 거짓말을 한다)”으로 바뀌게 된다. 이 문장에 다시 ‘来着’를 넣으면 “我撒谎来着(나는 거짓말을 했다)”가 된다. “我撒谎(나는 거짓말을 한다)”에 부사어 ‘刚才’를 넣어보면 “我刚才撒谎”으로 된다. 이때의 부사어 ‘刚才’는 문장에서 동작의 현재시점인 발화시간축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으므로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来着’은 ‘撒谎’의 뒤에서 ‘撒谎(거짓말을 하다)’라는 동작이 이미 완료됐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기에 이때의 ‘来着’는 중국어 상 표지 ‘了’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때의 ‘来着’를 ‘了’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동태조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끝에서 어기를 나타내는 조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1)을 보면 술어 ‘撒谎’이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刚才) 어느 시점부터 또 다른 어느 시점까지 그 동작이 펼쳐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기에 즉 ‘撒谎(거짓말을 하다)’이라는 장면이 분해되고 있는 동작의 내적 시간 구성이 있기에 ‘了’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때의 ‘来着’는 한국어의 ‘\_ 었(았)\_’로 해석이 된다.

10) 본고는 ‘V + 来着’; ‘V + O + 来着’; ‘V+(O) + 来着, + Sen’; ‘V + 来着 + Par’ 등 네 가지 통사구조에 맞는 대표적인 예문을 중국북경대학교 CCL말뭉치 (<http://ccl.pku.edu.cn>)에서 발췌하였다.



(1) “我刚才撒谎来着” 수형도

위의 (1')은 (1)의 수형도<sup>11)</sup>이고 ‘V + 来着’ 구조의 전형적인 수형도이기도 하다. 수형도 (1')을 보면 I[+aspect] ‘来着’는 V ‘撒谎’하고만 서로 통어하는 관계에 있고 Adv ‘刚才’는 VP ‘撒谎来着’와 통어하는 관계에 있다. 즉 ‘来着’는 동사 ‘撒谎’과 통어관계에 있으면서 동사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수형도 상의 제 관계를 볼 때 ‘来着’는 동사 ‘撒谎’과 의미상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통사적 분포를 볼 때 ‘来着’는 동사 ‘撒谎’과 관련이 있고 상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撒谎来着’의 정보 전달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하여 부가적인 성분인 부사어 ‘刚才’를 덧붙이기도 하였다. 박덕유(2013:55)는 시제를 발화시간과 관련된 장면의 시간적 위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나의 문법범주로 파악하면서 시제는 지시적인 것으로 장면의 외적 구성이며 주로 형태적 실현에 초점을 둔다고 하였다. 그

11)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장성분의 약어는 다음과 같다. IP(Inflexion Phrase, 굴절구), NP(Noun Phrase, 명사구), VP(Verb Phrase, 동사구), AdvP(Adverb Phrase, 부사구), CP(Complex Phrase, 복잡구), I(Inflexion, 굴절소), V(Verb, 동사), N(Noun, 명사), Adv(Adverb, 부사).

는 한국어의 시제를 과거(-었/았-)와 비과거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한국어에서 ‘\_었(았)\_’<sup>12)</sup>는 시제의 범주로 보아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1)에서 “난 방금 거짓말을 했다.”에서 ‘방금’이라는 부사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_었(았)\_’은 ‘방금’이라는 부사어와 호응하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예문을 더 보겠다.

(2) 我正这么想来着。(나는 마침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 (2a) 我正这么想着(呢).

(2)에서 ‘來着’는 심리동사 ‘想’ 뒤에 위치하여 과거에 어떤 행동이 진행되었었다는 ‘완료’라는 상적 의미를 갖고 있다. ‘想’은 심리동사로 [+상태성, +완결성, -순간성]이라는 상 자질을 갖고 있다. 즉 심리동사 ‘想(생각하다)’이라는 동작이 과거 어떤 시점에서부터 다른 어떤 시점까지 지속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의 想(생각하다)과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에서 ‘來着’는 ‘과거 진행’을 나타내고 있다. ‘來着’는 이때 중국어 상표지인 ‘着’과 매우 흡사하다. 어감 상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과거 어떤 시점에서 시작된 동작이 현재,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뜻이다. 다만 (2)은 ‘완료’와 ‘진행’등 두 가지 모순된 상적 특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완료’의 상적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 반면 (2a)는 ‘진행’이라는 상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이런 지속을 우리말의 용언의 활용형인 ‘\_고’에 보조동사 ‘\_있었다’가 결합한 형식 ‘\_고 있었다’로 번역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_고 있\_’은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진행상’을 나타낸다. ‘\_었(았)\_’은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따라서 ‘\_고 있었다’는 ‘진행상+과거시제’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겠다.

1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어미」((끝음절의 모음이 ‘ㄱ, ㄴ’가 아닌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 (3) 你这些日子怎么过来着? (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 (3a)  
你这些日子怎么过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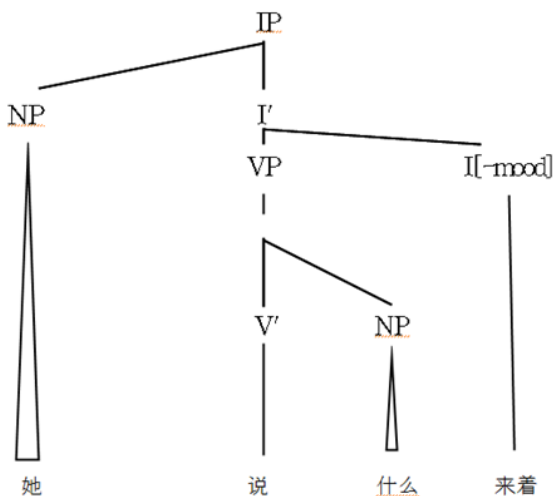
(3)에서 ‘来着’는 행위동사 ‘过[ + 동태성, + 완결성, - 순간성]’ 뒤에 위치하여 과거 어떤 행동의 진행이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这些日子’는 과거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을 갖고 있기에 이런 과거 지속은 현재는 이미 완료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3)에서 ‘来着’는 ‘완료’라는 상적 의미를 갖고 있다. (3)과 (3a)를 비교해 보겠다. 두 문장에서 ‘来着’과 조사 ‘的’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때의 ‘的’은 사실 문장의 앞에 위치할 수 있는 ‘是’와 ‘是…的’ 문형을 이루어 ‘是’와 ‘的’사이의 과거를 나타내는 상황들을 강조해주는 작용을 한다. 문장의 끝에 위치한 ‘的’이 술어의 과거 진행을 나타내준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런 ‘的’ 역시 ‘来着’과 같이 중국어 상 표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에 관한 연구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할 것이다. (3)과 (3a)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명사 ‘这些日子’를 빼더라도 “你怎么过来着?”와 “你怎么过的?” 두 문장은 술어 동사 ‘过’가 과거 어떤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왔고 지금은 완료됐다는 뜻이 된다. (3)에서 ‘来着’는 우리말의 ‘\_고 있\_’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 ‘\_고 있\_’은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진행상’을 나타낸다. ‘\_었(았)\_’은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따라서 ‘\_고 있었다’는 “진행상 + 과거시제”으로 정리할 수 있다.

### 3. ‘V+O+ 来着’ 구조 중의 ‘来着’

본고가 말뭉치 속의 예문을 살펴본 결과 ‘V+O+ 来着’ 구조 중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술어 ‘V’와 공간개념을 나타내는 목적어 ‘O’ 뒤에 위치한 ‘来着’는 술어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겠다.

- (4) 她说什么来着? (그녀는 뭐라고 말했어?) / (4a) 她说什么了?<sub>2</sub>

(4)에서 ‘来着’는 목적어 ‘什么’의 뒤 즉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여 ‘說(말하다)[+ 동태성, + 완결성, - 순간성]’이라는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럴 때의 ‘来着’는 ‘了<sub>2</sub>’와 매우 흡사하다. 즉 “她说什么来着?”를 “她说什么了?”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 두 문장 모두 그녀가 야까는 뭐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동작 시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보다 동작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런 변화를 현대중국어에서는 조사 ‘了<sub>2</sub>’로 많이 표현하고 있다.



(4') “她说什么来着” 수형도

(4')는 (4)의 수형도이고 ‘V + O + 来着’ 구조의 전형적인 수형도이기도 하다. (4')를 보면 VP ‘说什么’와 I[-mood] ‘来着’가 통어관계에 있고 후자가 전자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때의 ‘来着’는 ‘说什么’ 전체와 관련이 있기에 동사 ‘说’와 통사상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상적 특징은 갖고 있지 않고 양상과 관련된다. ‘来着<sub>2</sub>’<sup>13)</sup>은 우리말의 ‘\_었(았)\_’으로 번역할 수 있다. ‘\_었(았)\_’은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즉 “그

13) 본고는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来着’를 ‘来着<sub>2</sub>’로 표시한다.

너는 뭐라고 말했어?”에서 ‘말했어’는 단순히 발화시간이 과거라는 장면의 위치를 제시하는 외적 상황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다시 보겠다.

- (5) 昨儿我还在办公楼来着。(어제도 난 사무동에 있었어.) / (5a) 昨儿我还在办公楼呢。

(5)에서 ‘来着’는 목적어 ‘办公楼’의 뒤 즉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여 ‘在(있다)’라는 동작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때의 ‘来着’ 앞에 위치한 존재동사 ‘在(있다)’는 ‘昨儿’라는 과거 시간 속에서 내적 시간 구성을 갖고 있는 ‘과거진행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완료’라는 상 범주의 하위 범주인 ‘과거진행상’으로 볼 수 있다. ‘来着’는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사 ‘呢’로 대체해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 ‘来着’는 우리말의 ‘있어’ 즉 ‘\_였(았)\_’로 번역되는데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예문들을 보겠다.

- (6) 匈奴王叫什么来着? ( 흉노왕을 뭐라고 불렀었지? )  
 (7) 我从前是一个小姑娘来着。( 예전에 난 젊은 아가씨 이었어. )  
 (8) 故宫的房子有多少间来着? ( 고궁에는 방이 몇 칸 있었더라? )

(6), (7), (8) 중의 술어는 모두 특수 동사이다. (6)의 술어는 ‘叫(호칭하다)[-동태성, -완결성, +순간성]’라는 상태동사, (7)의 술어는 ‘是[-동태성, -완결성, -순간성]’라는 판단동사, (8)의 술어는 ‘有[-동태성, +완결성, +순간성]’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존재동사이다. 이런 특수한 동사는 [+동태성]과 [+완결성]이라는 상 자질을 갖고 있지 않기에 여기에서 ‘来着’는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라고 판단하겠다. 다만 (7)의 ‘来着’는 예전에는 젊은 아가씨이었지만, 현재는 아니라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6), (8)의 ‘来着’는 모두 화자가 예전에 기억하고 있던 말을 지금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변화’ 어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어기조사인 ‘来着’에 해당이 되고 우리말의 ‘\_였(았)\_’으로 번역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적이 있었다는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6), (7), (8)의 수형도도 (4')와 같다. 다음 예문을 보겠다.

- (9) 昨晚我在票房里见她来着。(어제 저녁에 나는 매표소에서 그녀를  
만난 적이 있다. / 만났었다.)

(9)의 ‘来着’는 ‘見’이라는 행위동사의 목적어 뒤에서 ‘과거경험’을 나타낸다. 이런 과거경험은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내적 시간 구성을 갖고 있는 ‘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과거경험상’을 나타낸다. 동태조사 ‘过’와 매우 흡사하다. ‘見’은 [+ 동태성], [+ 완결성] 등 상 자질을 갖고 있는 행위동사이다. ‘来着’은 우리말의 ‘\_ 적이 있다’ 즉 ‘\_ 었었\_’<sup>14)</sup>으로 번역이 된다. ‘\_ 었었\_’은 (9)에서 ‘내가 그녀를 매표소에서 만났었다.’라는 동작이 완료됐지만, 그 뒤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앞 문장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더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_ 었(았)\_’이 과거라면 ‘\_ 었었\_’은 ‘과거의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이다.

#### 4. ‘V + (O) + 来着, + Sen’ 구조 중의 ‘来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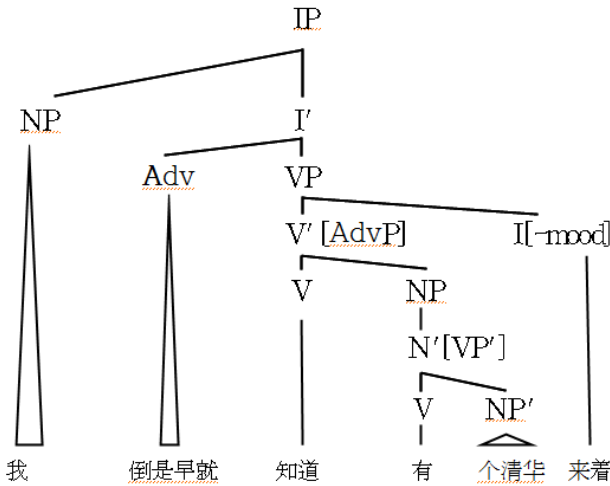
‘V + (O) + 来着, + Sen’ 구조는 ‘来着’가 복문 속의 앞 문장의 끝에 위치한 경우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겠다.

- (10) 我倒是早就知道有个清华来着, 我就没敢报考, 因为我知道, 报了也是找死。(난 오히려 벌써부터 칭화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원서를 넣지 못했다. 설사 넣었다하더라도 그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3)

(10)에서 ‘来着’는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여 ‘知道(알다)’라는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럴 때의 ‘来着’는 ‘了’와 매우 흡사하다. 즉 ‘知道有个清华来着’를 ‘知道有个清华了’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 동작 시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보다 동작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런 변화를 현대중국어에서는 조사 ‘了’로 많이 표현하고 있다. (10)를 보면 V’ ‘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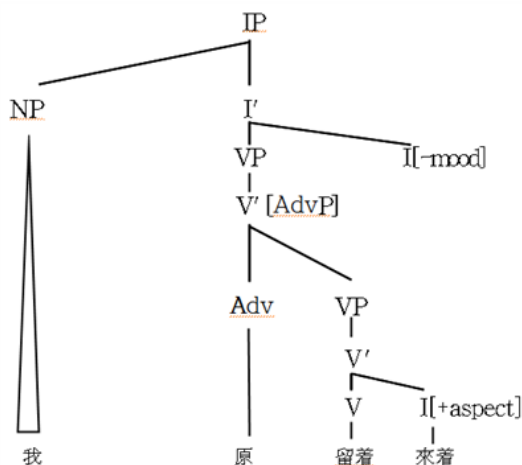
14)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었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어미」((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

道有个清华’와 I[-mood] ‘来着’가 통어관계에 있고 후자가 전자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来着’는 양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어기조사이다. Adv ‘倒是早就’는 ‘知道有个清华来着’와 통어관계에 있다. ‘来着<sub>2</sub>’은 우리말의 ‘\_고 있다’로 번역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_고 있\_’은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진행상’을 나타낸다. ‘\_였(았)\_’은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따라서 ‘\_고 있었다’는 ‘진행상+ 과거시제’로 정리할 수 있다.



(10') “我知道有个清华来着” 수형도

- (11) 我原留着来着,那会子李奶奶来了,喝了去了。(난 원래 남겨놓았지만, 그때 이 할머니가 오더니 그것을 마셔버렸다.)



(11') “我原留着来着” 수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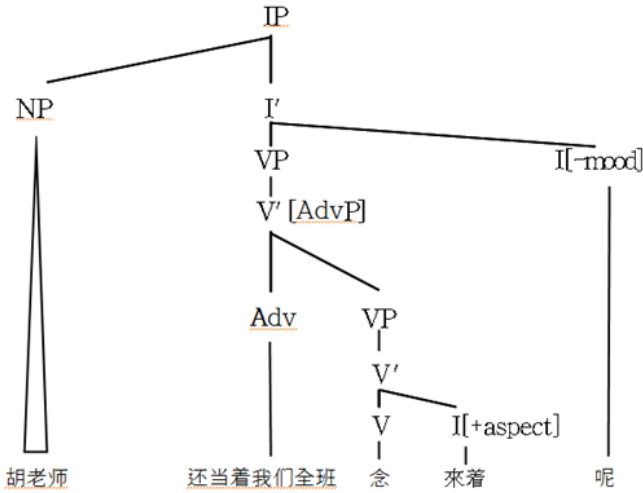
(11)에서 ‘来着’는 복문 속의 앞 문장의 끝에 위치하고 있다. 복문의 앞 문장 ‘我原留着来着’에서 ‘来着’는 술어 ‘留着(남겨놓다)’의 뒤에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我原留着来着’만 보면 뭔가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는데 바로 문장이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동시에 동작이 일단락되면서 새로운 동작에 대해 열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이때의 ‘来着’ 완료상의 하위범주인 ‘成事相’이 성립된다. 새로운 동작에 대해 열려있기에 그 문장 뒤에 ‘那会子李奶奶来了,喝了去了’와 같은 또 다른 문장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형도 (11<sub>1</sub>)을 보면 ‘来着’는 술어동사 ‘留着’와 통어관계에 있는 상 표지이다. 그러므로 통사적 분포를 볼 때 ‘来着’는 동사 ‘撒谎’과 관련이 있고 상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来着’는 우리말의 ‘었어’ 즉 ‘\_었(았)\_’로 번역되는데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5. ‘V + 来着 + Par’

‘V + 来着 + Par’구조에서 ‘来着’는 조사 ‘啊’, ‘呢’, ‘咧’등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즉 술어나 술빈구조와 조사 ‘啊’, ‘呢’, ‘咧’등의 사이에 위치하

고 있다.

(12) 胡老师还当着我们全班念来着呢。(호 선생님은 우리 반 애들 앞에서 읽었었지.)



(12') “胡老师还当着我们全班念来着呢” 수형도

(12)에서 ‘来着’는 술어나 술빈구조와 조사 ‘啊’, ‘呢’, ‘咧’등의 사이에 위치하여 과거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동작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때의 ‘来着’ 앞에 위치한 동사 ‘念(읽다)’는 과거 어떤 시점과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 속에서 내적 시간 구성을 갖고 있는 ‘과거지속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완료’라는 상 범주의 하위 범주인 ‘과거지속상’으로 볼 수 있다. 수형도 (12)를 봐도 ‘来着’는 술어동사 ‘念(읽다)’과 통어관계에 있고 ‘念(읽다)’의 내적 시간 구성을 나타내는 상 표지이다. ‘来着’는 ‘了’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사 ‘着’로 대체해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 ‘来着’는 우리말의 ‘었어’ 즉 ‘\_었(았)었\_’로 번역되

는데 과거의 과거 즉 대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는 중국어 조사 ‘来着’ 관련 언어구조 중한 대조 분석을 통하여 ‘来着’의 상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에서 ‘来着’가 사용된 구문이 통사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V + 来着’; ‘V + O + 来着’; ‘V+(O) + 来着, + S’; ‘V + 来着 + Par’ 등 네 가지 관련 구조로 나누어 한국어 대당 구조를 대조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구조들의 수형도를 통하여 그 상적 특징을 진일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来着’ 관련구조	예문	중국어 의미범주	중국어 표지	한국어 의미범주	한국어 대응표지
V + 来着	我刚才撒谎来着。	상범주- 완료	了 <sub>1</sub>	시제- ‘과거시제’	__었(았) __
	我正这么想来着。	상범주- 완료 (과거진행)	着(呢)	완료상+ 과거시제	__고 있 었__
	你这些日子怎么过来着?	상범주- 완료 (과거진행)	的	완료상+ 과거시제	__고 있 었__
V + O + 来着	她说什么来着?	양상범주- 어기조사(변화)	来着 <sub>2</sub> / 了 <sub>2</sub>	시제- ‘과거시제’	__었(았) __
	昨儿我还在办公楼来着。	상범주- 완료 (과거진행)	呢	시제- ‘과거시제’	__었(았) __
	匈奴王叫什么来着? 我从前是一个小姑娘来着。 故宫的房子有多少间来着?	양상범주- 어기조사(변화)	来着 <sub>2</sub>	시제- ‘과거시제’	__었(았) __
	昨天晚上我在票房里见她来着。	상범주- 완료 (과거경험)	过	시제- ‘과거시제’	__었(았) 었__
V + (O) + 来着,	我倒是早就知道有个清华来着,我就没敢报考,因为我知道,报了也是找死。	양상-어 기 조사 (변화)	来着 <sub>2</sub> / 了 <sub>2</sub>	진행상+ 과거시제	__고 있 었__



- 이은주, 「‘来着’의 시간 의미 고찰」, 『중국어문논총』, 중국어문연구회, 2004.
- 장호득, 「현대중국어의 ‘没’·‘有’ 및 相(aspects)」, 『중국어문학』, (35), 영남중국어문학회, 2000.
-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3집, 2013.
- 호선희, 「중국어 ‘来着’의 기능에 대한 일 고찰」, 『중국인문과학』, (52), 2012.
- 龔千炎, 『汉语的时相、时制、时态』, 北京:商务印书馆, 1995.
- 宋玉柱, 「关于时间助词“的”和“来着”」, 『中国语文』, 1981.
- 王 力, 『中国现代语法』, 北京:商务印书馆, 1984.
- 熊仲儒, 「“来着”的词汇特征」, 『语言科学』, (2), 2003.
- 吕叔湘, 『中国文法要略』, 北京:商务印书馆, 1982.
-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北京:商务印书馆, 1984.
- 刘月华, 『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1983/2001.
- 张 斌, 『现代汉语』, 上海:复旦大学出版社, 2002.
- 张谊生, 「略论时制助词“来着”——兼论“来着”与“的2”以及“来着2”的区别」, 『大理师专学报』, (4), 2000.
- 张 月, 「“来着”的词性归属探析」, 『现代汉语研究:学行堂文史集刊』, 1998.
- 朱德熙, 『语法讲义』, 北京:商务印书馆, 2000.
- 齐沪扬, 『语气词和语气词系统』, 合肥:安徽教育出版社, 2002.
- 중국북경대학교 CCL말뭉치(<http://ccl.pku.edu.cn>)
- BERNARD Comrie, *Aspect*, 北京:北京大学出版社, 1976.
- CHOMSKY, Noan,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Foris, 1981.
- CHOMSKY, Noan, *Barriers*,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86.

## ❖ ABSTRACT

## Comparative Analysis of Aspect of China Modern Chinese Auxiliary "Laizhe"

Han, Keung-Shuk

In this paper,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syntactic structure of Chinese auxiliary "Aspect" and with this correspondence, find out the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and the "Aspect" of aspect are analyzed, and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laizhe' relevant syntactic structure	Example	Chinese semantic category	Chinese Markers	Korean semantic category	Korean Markers
V + 来着	我刚才撒谎来着。	Aspect_perfective	了 <sub>1</sub>	Tense - past	— 였 (았) —
	我正这么想着。	Aspect_perfective(past continuous)	着(呢)	perfective + past	—고 있었 —
	你这些日子怎么过来着?	Aspect_perfective(past continuous)	的	perfective + past	—고 있었 —
V + O + 来着	她说什么来着?	Auxiliary words of mood - Change	来着 <sub>2</sub> / 了 <sub>2</sub>	Tense - past	— 였 (았) —
	昨儿我还在办公楼来着。	Aspect - perfective (past continuous)	呢	Tense - past	— 였 (았) —
	匈奴王叫什么来着? 我从前是一个小姑娘来着。 故宫的房子有多少间来着?	Auxiliary words of mood	来着 <sub>2</sub>	Tense - past	— 였 (았) —
	昨天晚上我在票房里见她来着。	Aspect - perfective (Past experience)	过	Tense - past	— 였(았)었 —

V + (O) + 来着, + Sen	我倒是早就知道有个清华来着,我就没敢报考,因为我知道,报了也是找死。	Auxiliary words of mood - Change	来着 <sub>2</sub> / 了 <sub>2</sub>	Conduct + past	—고 있었 —
	我原留着来着,那会子李奶奶来了,喝了去了。	Aspect_perfective (bygone)	呢	Tense - past	—었(았) —
V + 来着 + Par	胡老师还当着我们全班念来着呢。	Aspect_perfective 'past continuous'	了 <sub>1</sub> /着	Tense - past	—었(았)었 —

Key Words

来着, 상적 특징, 대조 분석, 통사구조, 과거진행상, 과거지속상

lai zhe(来着), aspect, comparative analysis, syntax, past conduct aspect, past continuous aspect

논문접수일: 2015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3월 16일